◀지난 4월 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생중계에서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연주곡을 설명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서울의 클래식 음악회 객석에 있는 듯 생생"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생중계

생생한 공연 실황·조재혁 해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무료 관람
11일 리스트·브루흐 등 연주

한달에 한 번, 여유로운 오전 시간, 근사한 클래식 음악회 주인공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

"오늘 음악회는 예전과 달리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생중계로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 찌간느는 집시라는 뜻이에요. 멜로디에 애절함이 묻어 나죠. 그럼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씨 연주로 라벨의 '찌간느'를 들으시겠습니다."

13번째 시즌을 맞은 서울 예술의전당 인기 프로그램 '11시 콘서트'(매월 둘째 주 목요일). 대형 화면에 등장한 피아니스트 조재혁씨 설명처럼 지난 4월 6일 열린 음악회는 광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콘서트 생중계는 예술의전당이 진행하는 'SAC ON SCREEN'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우수 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함께 보고 즐기는 프로젝트로 10여 대 카메라로 담아낸 UHD 고화질 영상의 역동적인 화면과 5.1채널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연극, 오페라 등 예술의 전당이 보유한 콘텐츠를 상영했고, 올해 처음으로 '11시 콘서트' 공연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광주문화재단이 행사를 주관한다.

올해 '11시 콘서트'는 조재혁씨가 연주회 해설자로 나서 관객들에게 알기 쉽게 클래식 이야기를 선사하고 5개 민간 오케스트라와 젊은 솔리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나간다.

'Bells'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학창시절 많이 들었던 요나손의 '빠꾸왈츠'를 시작으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등이 연주됐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생생한 연주 모습, 무대 뒤 출연을 준비하고 있는 연주자의 표정 등 생동감 있는 장면들이 공연 보는 재미를 더 했다. 무엇보다 조씨가 직접 피아노로 중요 모티브를 연주하며 덧붙이는 해설은 '친절한 클래식 선생님'을 만난 듯했다. 불협화음과 서정미가 어우러진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감상하는 피아니스트 이지연씨의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단조 Op.16'는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다.

마지막 레퍼토리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였다. 봄날에 듣는 '보칼리제'의 선율 역시 아름다웠다.

처음 열린 중계 실황 현장에는 아직 홍보가 잘 되지 않은 탓에 참여 관객은 적었지만 관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영상으로 감상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알기 쉬운 해설이 덧붙여져 '즐기면서' 관람할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었다. 반면 아트스페이스가 갖추고 있는 스크린 등 영상 시설은 해상도와 크기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재단은 이날 간단한 커피와 차를 준비해 관객들에게 제공했다. 인터미션 시간 20분을 포함하면 공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다. 공연을 모두 관람한 후 늦은 점심을 먹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와 공연장 로비나 야외 잔디밭에서 먹어도 좋다.

오는 11일 열리는 '11시 콘서트'에서도 조재혁의 해설과 함께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다. 'Potpourri'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구모영씨 지휘로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비올리스트 이한나, 피아니스트 정재원씨가 함께 한다.

연주 곡목은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베버의 '안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Op.35',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Op.85',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A장조 S.125' 등이다.

한편 'SAC ON SCREEN'에서는 앞으로 국립오페라단 '헨델의 메시아'(15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29일), 유니버셜 발레단 '라 바야데르'(6월12일), 예술의전당이 자체 제작한 오페라 '마술피리'(6월26일), 국립현대무용단 '증발'(7월10일), 연극 '보물섬'(7월24일)을 만날 수 있다.

사전 전화예약 한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월 '희망의 하모니'

음악으로 하나되는 오월음악회 …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음악으로 하나되는 제15회 오월음악회가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5월 열리는 오월음악회는 음악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다.

광주국제교류센터 음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전문 음악인들과 외국인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공연의 주제는 '희망의 하모니'다. 첫곡은 마주얼 앙상블이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Op.96 바장조 아메리칸'이 장식한다. 또 플루티스트 이현경·이현정씨가 오페라 '리골레토' 중 '판타지아'를 연주하며 이든 존스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을 바이올린으로 들려준다.

또 소프라노 이찬순·길애령·김미옥·박경숙·김선희, 테너 고규남, 바리톤 김대수씨 등 성악가가 천현주·박의혁·이성은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그리운 금강산', 오페라 '메피스토펠레스' 중 '어느 날 깊은 바다 속에',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못 이루고', 야마다 고사쿠의 '고추잠자리', 탕시어강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목포 광명원 핸드벨 공연단 '종소리 모아'(지휘 하수미)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며 마지막 무대는 출연진과 청중이 함께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전석무료 공연으로 진행되며, 공연 후 제 3세계 국가 지원을 위한 모금이 진행된다. 지난 2014년에는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했었다.

입장권 예약 광주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gic.or.kr). 문의 062-226-27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족들의 따뜻한 음악 무대

'제3회 오월가족음악회' 유·스퀘어 야외무대서 펼쳐져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따뜻한 무대가 열렸다. '제3회 오월가족음악회'가 지난 5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다.

올해는 현장 경연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새로운 참가팀과 전년도 참가팀, 지역 공연팀들이 어우러진 합동 무대로 꾸며졌다.

공연은 사회를 맡은 '말바우 아짐' 지정남씨의 구수한 입담과 함께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3인조 밴드 '프롤로그'가 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금상 수상팀인 '꿈꾸는 가족'과 경기도 이천에서 활동하는 '의석밴드', 올해 새로 참가한 '해피 크로버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졌다.

또 청년뮤지컬극단 '소울의 흥겨운 뮤지컬 공연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로 촛불 문화제에서 감동을 안겨준 가족밴드 '예닮'이 공연을 펼쳤으며 지역 밴드 '바닥프로젝트'의 축하공연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열린국악한마당 오영미 '피리 산조'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피리연주자 오영미씨가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에 선다. 11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오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꿋꿋하고 힘찬 피리의 음색을 섬세하고 다양한 기교로 변화 있게 이끌어가는 맛이 일품인 '피리 산조' 를 연주한다.

연주 곡목은 지영희의 경기 시나위를 중심으로 한 '박범훈류 피리산조' 와 서용석 명인의 구음을 기본으로 그 가락을 한세현이 완성한 '서용석제 한세현류 피리산조' 전 바탕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으로 전북대 음악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오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보존회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남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오씨는 또 2015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프랑스·헝가리 공연, 한중수교 18주년 기념 공연 등에 참여했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